

PAJU

Editor

SCHOOL

2021

EDITOR BRANDING 에디터브랜딩

파주 에디터스쿨

6.23-6.25

TIMETABLE

6월 23일 수요일

09:50 – 10:00	개회식		
10:00 – 11:20	강연 1	편집자의 길 – 할아버지 편집자가 되고 싶어요.	선완규 천년의상상 대표
쉬는 시간 (20분)			
11:40 – 13:00	강연 2	편집자의 색 – 브랜드 없이 일하는 법	김준섭 한겨레출판 문학팀 팀장

6월 24일 목요일

10:00 – 11:20	강연 3	편집자의 빛 – 나는 북디렉터(Book Director)입니다.	이연실 문학동네 국내5팀장
쉬는 시간 (20분)			
11:40 – 13:00	특별강연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려는 분들께	최인아 최인아책방 대표

6월 25일 금요일

10:00 – 11:30	강연 4	편집자의 눈	미노와 고스케 «미치지 않고서야» 저자
점심시간 (90분)			
13:00 – 13:30	포럼: 발제	편집자의 말	패널 김보경 지와인 대표
쉬는 시간 (10분)			
13:40 – 15:00	포럼: 토크	편집자의 말	이진 사계절출판사 인문팀장 남연정 드림콘에디터 대표 사회자 김진형 아카넷 편집장

OFFLINE

ONLINE

참가 신청

경기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줌(Zoom)

www.pajubookcity.org

June 23. Wed

09:50 – 10:00	Opening Remarks		
10:00 – 11:20	Lecture 1	Paths of Editor – I'd like to be a grandfather editor.	Wan-kyu Sun CEO of Imagine1000
Break Time (20min.)			
11:40 – 13:00	Lecture 2	Colors of Editor – How to work without branding	Jun-sup Kim Team leader of literature team of Hani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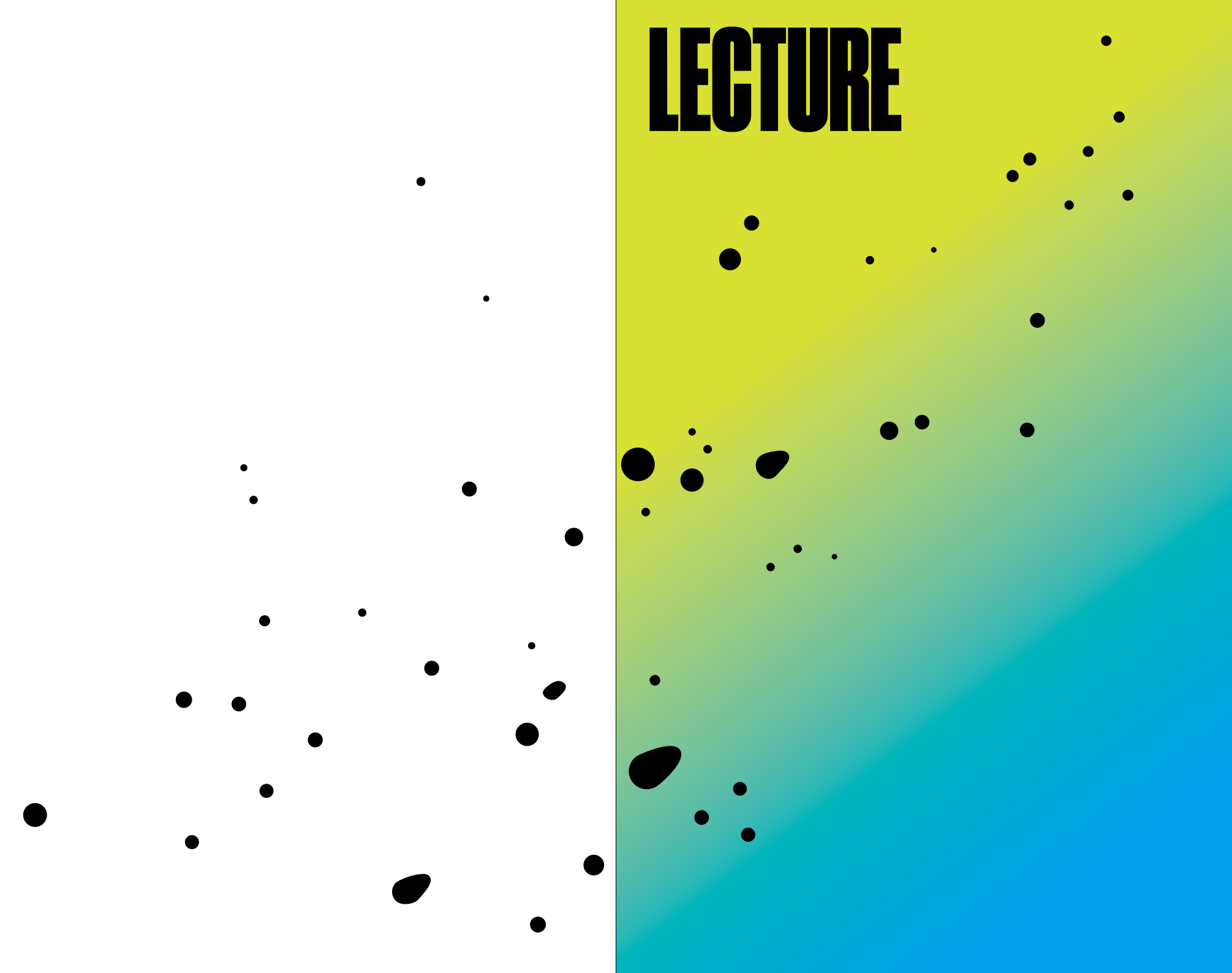
June 24. Thu

10:00 – 11:20	Lecture 3	Lights of Editor – I'm a book director.	Yeon-sil Lee Team leader of domestic team 5 of Munhakdongne Publishing Corp.
Break Time (20min.)			
11:40 – 13:00	Special Lecture	To the people desiring to work by searing on their name	Ina Choi Representative of Inabooks

June 25. Fri

10:00 – 11:30	Lecture 4	Eyes of Editor	Kosuke Minowa Author of <i>Scratches Other Than Dying</i>
Break Time (90min.)			
13:00 – 13:30	Forum: Presentation	Words of Editor	<u>Panels</u> Bo-gyoung Kim CEO of JIWAIN
Break Time (10min.)			
13:40 – 15:00	Forum: Talk	Words of Editor	Jin Lee Team leader of the humanities team of Sakyejul Publishing Ltd. Youn-jung Nam CEO of Drunken Editor (Sam&Parkers) <u>Host</u> Jin-hyung Kim Editor-in-chief of Acanet

LECTURE



1 편집자의 길- 할아버지 편집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인문학을 좋아한다. 옛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고,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궁금해서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각이 문자로 표현된 책을 가까이하게 되었고, 그런 친숙함이 삶의 행운으로 이어져 편집자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2023년이면 편집자가 된 지 30주년을 맞이한다. 나 스스로 나를 축하해주고 싶다. 30년 동안의 삶을 글로 표현해보고 싶다. 할아버지 편집자가 되어 30년 정도 더 활동하고 싶다. 손주 같은 저자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편집자로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횡단하는 나만의 길을 걸어보고 싶다.

선완규
천년의상상 대표
1966년에 태어나 1993년에 출판사 편집자가 되었다. 새길, ㈜디자인하우스, 푸른숲, ㈜휴머니스트 편집주간을 지냈다. 2013년부터 천년의상상 편집자 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미학 오디세이»(전 3권), «서양미술사»(전 3권), «대담-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다», «파란(정민의 다산독본)»(전 2권), «이미지 인문학»(전 2권), «언더그라운드 니체», «다이너마이트 니체», «월간 정여울 시리즈»(전 12권), «북클럽자본 시리즈»(전 12권) 등을 기획 편집했다.



1 PATHS OF EDITOR – I'd Like to Be a Grandfather Editor.

I like the humanities because I'm curious what the people of old times thought and what the people of these days think. So, I spent much time with the books that have the thoughts of that people expressed in words and became an editor as a job. I'll mark my 30th anniversary 2023 and I'd like to celebrate myself and express my 30 years life in writing. I also like to become a grandfather editor for working 30 years more and target to discover grandchild like authors. I desire to walk my way crossing analog and digital as an editor.

Wan-kyu Sun
CEO of Imagine1000
Born in 1966 and became an editor in a publishing company in 1993. Editor in chief of Saegil, Designhouse Inc., Prunsoop, and Humanist Books and has worked as the CEO and editor of Imagine1000 since 2013. Planned and edited *Aesthetics Odyssey*(total 3 volumes), *Western Art History*(total 3 volumes), *Conversation-Humanities Meet Natural Science, Paran-Dasan Reading of Jeongmin*(total 2 volumes), *Image Humanities*(total 2 volumes), *Nietzsche, an Undergrounder, Nietzsche, an Dynamite, Monthly Series-Jeongyeowul*(total 12 volumes), and *The Series of Book Club Capital*(total 12 volumes).

2 편집자의 색- 브랜드 없이 일하는 법

개인도 브랜드가 되어야 성공하는 1인 브랜드 시대. 브랜드는 정말 필요할까? 브랜드 없이 일할 수는 없을까? 어차피 내가 이 회사에서 평생 일할 것도 아닌데..... 편집자로 일하면서 자주 고민했고, 최근에는 더 자주 고민을 강요당하고 있는 '브랜드'라는 단어에 관해 강연이라는 형식을 빌려 풀어보았습니다.

김준섭
한겨레출판 문학팀 팀장
2013년부터 한겨레출판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학책 편집을 담당합니다.
인스타그램 @_chimo85

1 COLORS OF EDITOR – How to Work Without Branding

Today is the era of 'single person brand' that individuals can be successful only when they become a brand. Is the brand really needed? Is there any way that I can work without brand? Anyway, I will not work for this company all my life..... In this lecture, I will deal with this word of 'brand' which I have been and am forced to be frequently concerned with.

Jun-sup Kim
Team leader of literature team of Hanibook
Editor in Hanibook since 2013. Has been mostly charged of editing literary books.
Instagram @_chimo85.



3 편집자의 빛-

나는 북디렉터(Book Director)입니다.

편집자는 텍스트만 편집하지 않는다.

기획·디자인·마케팅·제작 등 모든 부문에
관여하며, 온갖 것을 선택하고 연출한다. 그래서
나는 편집자를 ‘북디렉터’라고 말할 것 같다.
내가 맡은 작가와 원고가 주목받을 수 있게끔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빛을 더하고,
나아가 편집자로서의 내 삶도 빛나게 하는 북디렉터
말이다. 컴퓨터와 전화 앞에 묶인 편집자 말고,
세상과 사람 속에서 궁리하고 도모하는 북디렉터로
살면 편집 일이 한층 재미있어진다.

이연실

문학동네 국내5팀장

15년 차 편집자. 문학동네 편집팀장. 김훈의 «라면을
끓이며», «하정우의 걷는 사람, 하정우»,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슬아의 «부지런한 사랑» 등의 책을 만들었다. 지은
책으로 «에세이 만드는 법»(유유)이 있다.

3 LIGHTS OF EDITOR-

I'm a Book Director.

An editor not only edits the text but also
selects and directs all things. So, I would
like to call an editor as a ‘book director’.
In order to make the authors and their book
manuscript to attract public attention, I, an
editor as a book director, actively add the
light in the course of making those books
so that the life of editor will also shine.
If I live as a book director beating my brain
among this world and people rather than
being tied up by computer and telephone,
the work of editing gets more interesting and
exciting to me.

Yeon-sil Lee

Team leader of domestic team 5 of Munhakdongne
Publishing Corp.

An editor with 15 years experienced and the
team leader of edition team of Munhakdongne
Publishing Corp. who has made books including
While Cooking Instant Noodles written by Hoon
Kim, *Jungwoo Ha, A Walker* written by Jungwoo Ha,
The Unwomanly Face of War written by Svetlana
Alexievich, and *A Diligent Love* written by Seula Lee.
I wrote *Way To Make An Essay*(uupress).

특별강연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려는 분들께

많은 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에 천착합니다.
중요한 생존·성장 전략으로 또는 노력에 대한 더
나은 평가와 보상을 얻는 방편으로 퍼스널 브랜딩에
주목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미흡한 보상과
평가를 받는 이유는 브랜딩이 안 되어 있어서라고
여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보다 나은 평가를
얻는 것이 브랜딩의 전부일까요?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나의 성장에 실제로
보탬이 될 수 있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인아

최인아책방 대표

카피라이터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제일기획 부사장을
지내고 지금은 ‘최인아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Special Lecture

To the People Desiring to Work by Searing on Their Name

Many people are obsessed with the
concept of ‘personal branding’ as a way of
important surviving strategy or securing
better evaluation and compensation for
their effort. So, the people consider that the
reason of securing insufficient evaluation
and compensation is because they are not
branded. Would it be? Is the branding is
everything for securing better evaluation
than now? I would like to discuss how we
must consider personal branding and which
approach to personal branding will be
actually helpful to my growth.

Ina Choi

Representative of Inabooks
Copywriter and creative director. Former vice
president of ‘Cheil Worldwide’, currently operates
Inabooks.



4 편집자의 눈

- 플랫폼으로서의 편집자
- SNS와 커뮤니티의 활용
- 라이벌은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가 아니다
- 만드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시대에 중요한 것
- 브랜드를 만들다

미노와 고스케

«미치지 않고서야» 저자

2010년 후타바샤(双葉社)에 입사해 광고영업, 이벤트 운영 등을 경험한 뒤 편집부로 옮겼다. 2015년에 겐토샤(幻冬舎)로 이직해 편집자로 일하면서 도요경제 온라인과 AdverTimes의 칼럼 집필진으로 활동했다. 2017년 10월에 나미노우에상점(波の上商店)을 설립했다. 2018년 1월 말에 CAMPFIRE와 겐토샤가 공동 출자한 엑소더스(エクソダス)의 이사로 취임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저서 «미치지 않고서야(원제:死ぬこと以外かすり傷)»를 출판해 최단기간 판매량 13만 부를 돌파했다. 일본 최대의 온라인 살롱 '미노와 편집실(真輪編集室)'을 운영하고 있다.

4 EYES OF EDITOR

- Editor as a platform
- Utilization of SNS and community
- Rival is not another company in the same industry
- The important thing in the era that the face of person making books is shown
- We make br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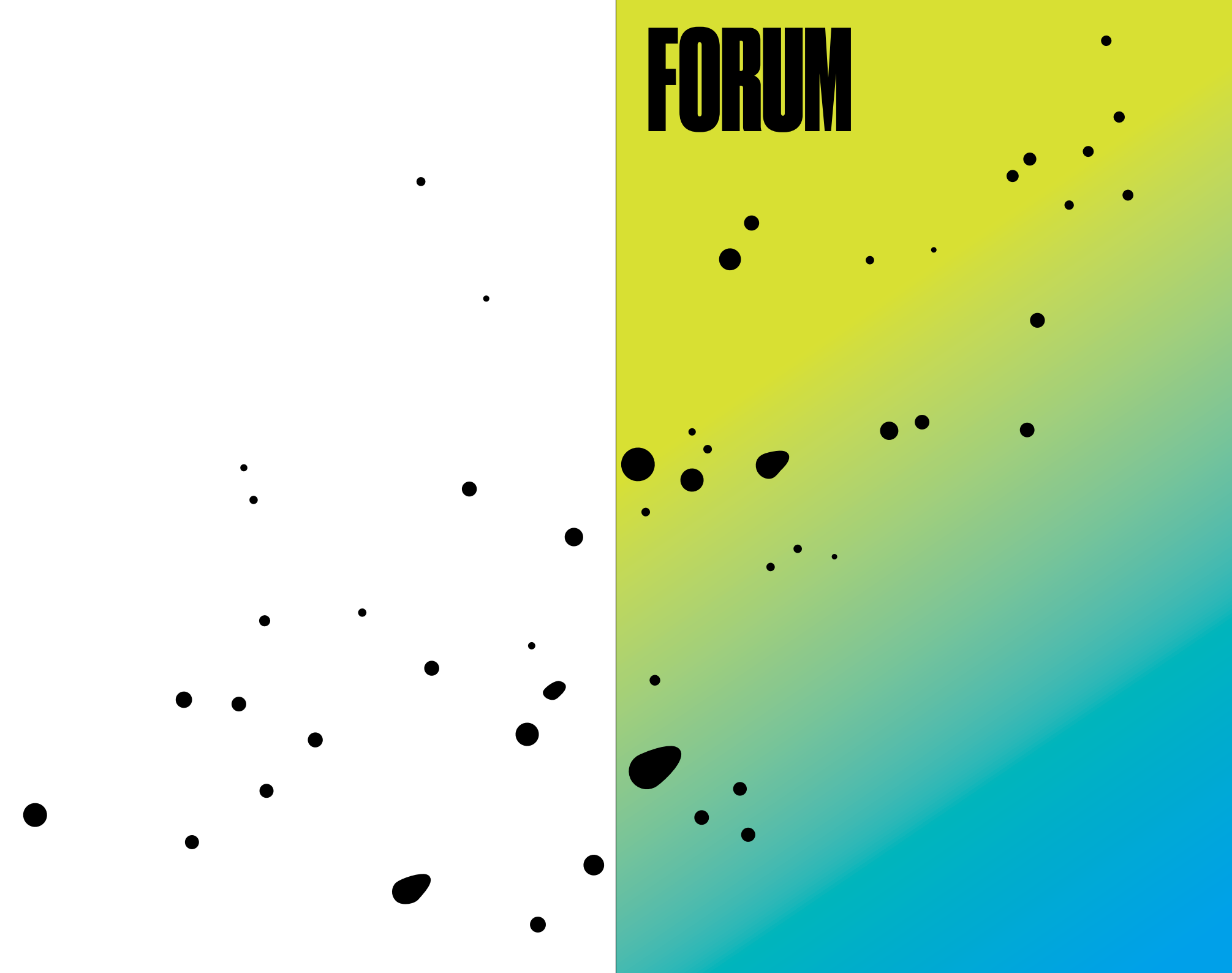
Kosuke Minowa

Author of *Scratches other than dying*

He joined Hutabasha, experienced advertisement, sales and event operation before moving to the editorial department there. In 2015, he moved into Gentosha and acted as a writing staff of column of Toyo Economy online and AdverTimes. In October, 2017, he established Naminoueshoten. At the end of January, 2018, he took office as a director of Exodos to which CAMPFIRE and Gentosha had jointly invested. In August, 2018, he published his book titled *Scratches other than dying* and its sales volume broke 130,000 copies. He operates 'Minowa Editorial Room', the biggest online salon in Japan.



FORUM



편집자의 말

지금 출판계는 그야말로 편집자의 시대다. 많은 편집자들이 책과 SNS, 유튜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며 편집자 자신만의 색으로 책과 세상을 잇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편집자의 자기 브랜딩'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그 흐름을 타보고자 한다.

포럼에서는 더욱 넓은 시야로 오늘날의 흥미진진한 흐름에 접근한다. '에디터 브랜딩'이라는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며 과거의 역할을 돌아보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동안 지내온 시간에 깊이를 더하는 경험, 앞으로 지낼 시간에 활력과 설렘을 더하는 생각과 고민이 어우러져 조금은 더 '나'다운 단단한 편집자를 만들어보려 한다.

편집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고리를 편집자의 말로 엮어본다.

패널

김보경

지와인 대표

'지식과 사람을 가깝게'라는 모토로 책을 만드는 지와인 출판사 대표. 계간 <당대비평> 상임편집위원으로 출판 편집 일을 시작했다. 웅진지식하우스 대표, 인플루엔셜 출판본부장으로 일했다.

이진

사계절출판사 인문팀 팀장

대학교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2005년에 편집자가 되었다. 푸른숲에서 6년을 일했고, 2014년부터 사계절출판사 인문팀에서 일하고 있다. 주로 인문교양서를 만들어왔다.

남연정

드렁큰에디터 대표

에세이 전문 브랜드 드렁큰에디터를 론칭, 먼슬리에세이 시리즈를 출간했다. 출판사 근속 연수를 더하면 대략 12년 차인 셈이다. 드렁큰에디터에서 기획과 편집, SNS 마케팅을 1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drunken_editor

사회자

김진형

아카넷 편집장

돈이 궁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처음 일한 출판사인 IVP에서 '북마스터' '문서운동가' 등으로 불러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 책담, 생각의힘, 알마, 아카넷 등에서 편집장 또는 편집주간으로 일했다. 간혹 책이 벼들처럼 느껴져 힘겹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행동하는 삶(vita activa)과 성찰하는 삶(vita contemplativa)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사유의 책'을 꿈꾸며 살고자 한다.

Words of Editor

These days are the era of editors in the publishing field. Showing active move through various online/offline including books, SNS, and YouTube, editors play a great role in connecting the books with the world by establishing their own way. We consider this phenomenon as a kind of trend of "Editors' own branding" and would like to swim with the trend.

In this forum, we will approach to today's exciting trend in our broader perspective. We will identify current position of 'Editor Branding', look back its role in the past and think of its future. We, as editors, would like to draw more ideal and solid type of editor which is the way 'we' are while having a thought and consideration adding vital power and excitement to the times to be consumed in the future based on the past deep experience.

The notes from the following editors are an attempt to connect ring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editors.

Panels

Bo-gyoung Kim

CEO of JIWAİN

CEO of JIWAİN, a publishing company making books with a motto of 'be friends with knowledge and people'. She started publishing and editing work as a full-time editorial staff in Dangdaereview, a quarterly magazine. She worked as the CEO of 'Woongjin jisikhouse' and the head of the publishing department of Influential Inc.

Jin Lee

Team leader of the humanities team of Sakyejul Publishing Ltd.

Majored in the anthropology from university and became an editor in 2005. Worked for 6 years in Prunsoop and has been working in the humanities team of Sakyejul Publishing Ltd. since 2014. Has mainly been making humanities and liberal arts books.

Youn-jung Nam

CEO of Drunken Editor(Sam&Parkers)

Launched Drunken Editor, a brand specialized in essay, and published a series of monthly essay. 12 years experienced editor by adding the service years in publishing company. She operates 1 person system under which she makes planning, editing and SNS marketing in Drunken Editor. Instagram @drunken_editor

Host

Jin-hyung Kim

Editor-in-chief of Acanet

I just started to work as an editor at IVP for money and have haunted by guilt whenever I was called as a 'bookmaster' or 'text activist'. I have worked as an editor-in-chief or managing editor in Chaekdam, Thinking Power Books, Almabooks and Acanet. Sometimes, I am tired of when I feel the books as bricks but I would like to live in hopes of making 'books for thinking' bridging the gap between 'activist's life(vita activa)' and 'contemplator's life(vita contemplativa)'.

김보경 Bo-gyoung Kim



이진 Jin Lee



남연정 Youn-jung Nam



김진형 Jin-hyung Kim



